

큰빛은혜교회 가정에배지

2024. 3. 13. WED



가정 예배 순서

예배준비 가족이 함께 모일 수 있는 시간을 정해주세요
인도자 / 기도자 등의 순서를 정해주세요

사도 신경

다 같이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 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 양

찬송가 38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다 같이

각 가정마다 악기를 가지고 아래 찬송가 혹은 원하시는 찬양을
선곡하여 찬양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1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2 어려워 낙심 될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때 주 너를 지키리

3더쓸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4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후렴 주 너를 지키리 아무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 주시리 아멘

대표 기도

가족 중 한 명이 기도합니다

기도자

성경 봉독

요한복음 14장 1~6절

다 같이

- 1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 2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 3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 4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 5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 6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 나눔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인도자

본문은 주님께서 그의 제자들이 당할 고통을 이기도록 용기와 위로를 주시는 말씀입니다. 바로 앞장에서 주님께서 가롯 유다의 배신과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하게 될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제자들은 매우 마음이 무거운 상태였습니다. 주님의 예고는 그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상당한 시련이 있을 것을 짐작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한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시기 적절한 위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님을 믿는 자에게는 누구에게나 시련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 시련을 예상하여 근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믿는 자에게 근심은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들이 근심하지 않아도 될 근거가 무엇인지 알아볼 때 큰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본문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당시 제자들이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신뢰하고 있는 상태를 반영하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하나님을 '믿음직한', '든든한', '신뢰할 만한',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분으로 믿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자신을 믿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영광과 속성과 본질에 있어서 하나님과 동일하시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러므로 우리도 제자들과 똑같은 믿음을 가지는 것이 우선 중요합니다. 그 믿음직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지켜 주신다면 우리가 걱정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는데, 우리를 정죄하고 대적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누구이겠습니까?

로마서 8장 31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개인과 가정이 아무리 힘든 상황이나 어려움이 닥쳐도 걱정하거나 염려하거나 좌절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신 것을 놓지 않는다면 반드시 아버지께서 회복을 시켜주실 줄 믿습니다.

둘째, 장래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않아도 될 또 하나의 근거로서 장래의 소망을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본문 2~3절 말씀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주님의 이 말씀은 그를 믿는 자가 장차 들어갈 천국과 그곳에서 누리게 될 복된 상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에서의 환난을 피할 수는 없으나, 그 환난은 성도가 들어가서 얻게 될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렇기에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장래의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근심을 떨쳐버릴 수가 있습니다. 소망이 확실한 성도에게는 담대함과 마음의 평안, 행복이 주어집니다. 이 소망은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이므로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확실한 것입니다.

만약 믿는 자에게 이 소망이 없다면 그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존재일 것이라고 바울은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6~19절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부활과 천국이 있기 때문에 비록 이 세상에서 고난과 시련을 당하여도 가장 행복한 자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육신이 죽어서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부활과 천국의 소망을 경험하고 체험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셋째, 성령님께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서는 여러 말씀으로 제자들을 위로하시고 권면하셨지만, 제자들은 좀처럼 불안을 떨쳐버리지 못했습니다. 이에 주님께서서는 보혜사 성령님의 도움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승천하신 후에라도 성령님께서서는 주님의 말씀으로 제자들을 위로하시며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성령님은 성도를 돕는 자이십니다. 누구보다도 성령님께서서는 성도의 연약함을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대신 간구하여 주신다는 것은 성도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친히 하나님께 아뢰실 뿐만 아니라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지혜와 능력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도 성령님의 충만을 받은 후 모든 근심과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능력을 힘입어 담대한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되었던 것과 같은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도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모셔드리십시오. 그리고 성령충만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며 그분의 다스림을 통해서 세상의 근심과 두려움은 사라지고 성령님께서 모든 것을 제거하여 주실 것입니다.

나눔

다같이

- 1 최근에 걱정하고 있거나 두려운 것이 있나요?
구체적으로 나누어 주세요.
- 2 하나님과 함께 이땅에서 이루고 싶은 소망은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주신 꿈과 비전을 나누어 주세요.

중보기도

믿음의 가정을 위한 기도문

다같이

- 1 가정마다 예배와 기도가 멈추지 않으며 사랑의 언어로 서로 축복하는
믿음의 명문 가정이 되도록
- 2 가정의 모든 관계가 화평케 하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평안하게 되도록
- 3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는 아름다운 가정이 되도록
- 4 자녀들이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들이 자녀들을 주의 교훈과
훈계로 바르게 양육하는 성경적인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되도록

마무리 기도

다같이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근심과 걱정은 떠나가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교회와 가정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다같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